



## 단순 반복학습과 창의적 반복학습의 한국 성인 영어학습자의 어휘학습에 미치는 효과

강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 24, 2020  
Revised: Jan. 11, 2021  
Accepted: Jan 25, 2021

Dongho Kang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02-970-6250  
[dh14kang@seoultech.ac.kr](mailto:dh14kang@seoultech.ac.kr)

### ABSTRACT

Kang, Dongho. 2021. The effects of repetition & generation on Korean EFL adult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44-55.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wo kinds of repetitions (retrieval and generation) on Korean adult learners' vocabulary acquisition. Twenty-eight adult learners in college of lifelong education in Korea were divided into two experimental groups, and further grouped into intermediate and beginner proficiency levels. Both groups listened to the target expressions (Korean and English) before on-line instructions, where they practiced English production of Korean translation. Then the retrieval group was exposed to the same kind of mechanical repetition while the generation group, to the creative use of the expressions in conversation. The ANCOVA statistic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ost-test, but the paired-samples t-tests indicate that the intermediate levels improved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more than the beginner levels in Generation (Creative use). The theoretic and pedagogical discussions were made in the conclusion.

### KEYWORDS

vocabulary acquisition, retrieval, generation, repetition, lifelong education, EFL

## 1. 서론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행 연구자들은 어휘 학습을 위해서 단어 노출 빈도(Waring and Takaki 2003), 모국어 비교 분석 및 번역(Laufer and Girsai 2008), 학습자의 과업 참여도(Hulstijn and Laufer 2001)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외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행 연구들은 목표 언어 어휘의 의미는 어휘사전(lexicon)에서 독립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 어휘의 의미적 지식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Jiang 2002, 2004, Joyce 2018, Wolter 2006). Laufer와 Girsai(2008)의 연구는 의미 중심(meaning-focused), 형태 초점(form-focused), 대조분석 및 번역(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실험 집단 중에서 모국어와 외국어 어휘 대조분석과 번역을 사용한 집단이 어휘와 언어 학습에 가장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어휘 학습의 선행 연구들은 새로운 어휘의 반복적 노출(Candry, Deconinck and Eyckmans 2018, Folse 2006, Waring and Takaki 2003, Webb 2007a, 2007b)과 학습자의 과업 관여도(elaboration of processing)(Hulstijn and Laufer 2001, Keating 2008, Kim 2011)가 어휘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Eckerth and Tavakoli 2012, Peters, Hulstijn, Sercu and Lutjeharms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한 반복의 횟수보다는 질적 심도 있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수반하는 반복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Nation(2001)은 어휘 학습에 대한 인지적 조건으로 처음에 주목(Noticing) 단계의 학습, 학습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단순 반복(Retrieval) 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어휘를 다시 듣거나 사용하는 창의적 반복(Generation)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국어에서 외국어 번역을 통한 주목 단계의 기본 어휘 학습을 한 후에, 단순 반복과 창의적 반복의 차이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 연구는 주로 중등학교나 대학교의 중·상급 수준의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반해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중·하위 수준의 성인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 차이점을 조사하려고 한다.

## 2. 문헌 연구

최근의 연구들은 외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Jiang 2002, 2004, Joyce 2018, Laufer and Girsai 2008, Wolter, 2006). Wolter(2006)는 목표 어휘 사전(lexicon)에서 단어 사이의 연결을 할 때 모국어 어휘의 의미적 지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목표 어휘의 연어(collocation) 사용에 있어서는 모국어 정보가 도움보다는 방해로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계열적(paradigmatic) 관계와 통사적(syntagmatic)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의미론적 연관성(예, dog-animal)인데 반해서 후자는 통사적 연관성(예, dog-bite)을 뜻한다. 그래서 의미론적 개념은 모국어와 유사하지만, 연어 등의 통사론적 개념을 모국어와 외국어 차이점이 더 많아서 방해를 줄 확률이 더 높

고 유창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재해석 된다고 주장한다.

Jiang(2002)은 목표 어휘 형태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형성하기보다는 모국어의 번역 속에 나타난 의미에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연구는 원어민보다는 비원어민이 모국어 번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쌍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미의 유사성 반응 속도에서 유의미하게 더 빠르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iang(2004)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목표 어휘의 저장이나 구현에 모국어 의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어휘 학습을 위해서 모국어 번역이나 주해의 제공은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손쉽고 빠른 방법이며, 모국어 번역을 안다는 것은 특히 성인 학습자에게 의미에 관한 확실성과 장기적인 기억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114).

Joyce(2018)는 어휘 학습과 평가에 모국어 번역과 외국어 정의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영어를 학습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은 어휘의 수용적 지식(receptive knowledge)을 평가하는 사전 및 사후 검사를 한 후에, 단어 학습에서 절반은 모국어 번역, 나머지는 영어 정의를 제공하여 학습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후 검사에서 목표 어휘의 영어 정의를 묻는 문항보다는 모국어를 묻는 어휘 인지 문항에 점수가 더 높았고, 학습과 평가 방법이 일치할 때 더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목표 어휘가 학습되는 언어(모국어와 영어)는 어휘 점수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Laufer와 Girsai(2008)는 세 가지 교수법, 즉 의미 중심, 형태 초점, 대조분석 및 번역 수업이 어휘와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의미 중심 학습은 형태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둔 과업을, 형태 초점 교수법은 목표 어휘에 초점을 둔 어휘 과업을, 마지막으로 대조분석 및 번역 수업은 모국어에서 외국어 또는 외국어에서 모국어 번역 과업을 사용하고 대조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각각의 실험 처치 후의 결과는 대조분석 및 번역 수업이 월등하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모국어-외국어 번역의 학습 효과를 주목(noticing) 가설, 강요된 출력(pushes output), 과업 수행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해를 통한 부수적(incidental) 외국어 어휘 학습의 연구들은 새로운 어휘의 반복적 노출(repeated encounters)과 학습자의 인지적 관여(elaboration of processing)가 어휘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Eckerth and Tavakoli 2012).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Baddeley(1997)는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의 형태와 의미의 결합에 처음 노출된 후에 즉각적인 반복의 기회가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제안하였으며, 반면에 과업 수반 가설(task involvement load hypothesis)에 의하면, 빈도보다는 과업 참여 정도와 어휘 학습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Hulstijn and Laufer 2001, Keating 2008, Kim 2011).

Folse(2006)는 Laufer와 Hulstijn(2001)의 과업 수반 가설에 따른 다양한 학습자의 과업의 참여 정도와 어휘의 반복(retrieval) 노출에 따른 어휘 학습 효과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반복된 노출이 과업 참여 요인보다 어휘의 기억력에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세 가지 과업, 한 번의 빈칸 채우기, 세 번의 빈칸 채우기, 단어를 활용한 문장 적기를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노출한 세 번의 빈칸 채우기 연습이 나머지 두 개의 요인보다 더 효과가 크게 나왔다. 즉, 과업의 참여 정도보다는 반복의 수가 어

회 학습에서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Joe(2010)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연구에서 학문적 목적으로 학습하는 제2언어 성인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서 문맥의 제공, 인지적 참여 정도, 노출 빈도의 상대적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단어의 반복 노출 빈도가 깊이 있는 문맥의 제공보다 더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Waring과 Takaki(2003)는 수준별 독본(graded reader)에서 단어의 반복 횟수와 기억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 8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5회 이상 반복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어휘의 지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Webb(2007a)도 어휘 학습에서 반복의 횟수가 5개의 영역에서 어휘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문맥 속에서 10번의 반복 후에 학습에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Webb(2007b)은 일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맥(문장) 속 단어 학습과 문맥이 없는 단어 쌍을 통한 학습을 비교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한 반복보다는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심층적 처리(deep processing)가 수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Peters 외(2009)는 읽기 전·후에 어휘 평가 공지(독해 중 온라인 사전 이용 유도), 과업 유도형 어휘 학습(어휘 독해 시험), 어휘 집중 유도 과업(영작, 빈칸 채우기, 동의어/반의어, 모국어 번역)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어휘 시험 공지는 학생들이 독해 중에 온라인 사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독해 시험이나 어휘 집중 과업은 학생들이 시험을 통한 어휘의 의미에 심층 처리(elaborate processing)와 반복의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다. 결과를 보면, 어휘 시험 공지와 어휘 독해 시험은 온라인 사전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후 어휘 기억 시험에는 독해 시험과 심층적 어휘 집중 과업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사전을 사용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정도로는 어휘 학습에 부족하며, 인지적 노력이나 반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ckerth와 Tavakoli(2012)도 상위 수준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휘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학습 후에, 어휘 노출 빈도(word exposure frequency)와 어휘 심층 처리(elaboration of word processing)가 어휘 학습에 대한 상대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두 변인이 초기의 어휘 학습 효과는 동일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후기의 어휘 기억에는 입력과 출력을 통한 심층적 어휘 처리 변인이 어휘 노출 빈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Candry 외(2018)는 반복의 수단으로 문어 반복(written repetition)과 구어 반복(oral repetition)의 어휘 학습 효과를 조사하였다. 즉, 문어 반복에서는 학습한 어휘를 글로 쓰는 반복이며 구어 반복은 말로 반복하는 조건이다. 실험 직후의 어휘 형태의 기억은 문어 반복이 구어 반복에 비해 더 효과가 있지만,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러한 장점은 사라졌다. 또한 어휘의 의미나 암시적 지식의 기억에서는 두 조건에서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반복의 종류(문어 및 구어)보다는 반복의 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휘 학습에서 반복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심도 있는 인지적 노력과 참여가 수반될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Nation(2001)은 어휘 학습에 대한 인지적 조건을 세 단계, 즉 주목, 단순 반복, 창의적 반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주목 단계는 어휘 형태나 의미에 집중하는 단계이며, 단순 반복 단계는

목표 어휘의 수용적(receptive) 또는 생산적(productive) 노출 시에, 어휘목록(lexicon)에서 어휘의 형태나 의미를 다시 회수 또는 검색(retrieval)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창의적 반복은 재생산(gener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미 학습한 어휘를 새로운 환경에서 수용적 또는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Snellings, Gelderen과 Gloppe(2002)는 Nation(2001)의 유창성 위주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유창한 목표 어휘의 반복(retrieval) 훈련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결과는 이러한 반복 훈련이 학습자의 어휘의 정확도나 반응 속도에서 향상시켜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반복 훈련의 경우에도 수용적(receptive) 연습과 생산적(productive) 연습이 가능한데, De la Fuente(2002)의 연구는 후자의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즉, 발화의 유무에 따른 의미협상은 수용적 어휘 학습에는 동일하게 효과가 있었지만, 발화 동반 의미 협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적 어휘 학습에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적 발화를 통한 창의적 반복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 (1) 단순 반복 집단과 창조적 반복 집단 사이에 어휘 학습에 차이점이 있는가?
- (2) 단순 반복 집단과 창조적 반복 집단의 실험 처치 후 어휘 향상도가 유의미한가?

#### 3.2 연구 절차 및 실험 처치

본 연구의 참여자는 평생교육대학의 재학생으로 대부분 성인 학습자로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60대에 분포되어 있다. 총 28명의 참여자는 케임브리지 온라인 영어 유창성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하위 및 중위 학습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A-B). 사전 검사는 2020년 3월 첫 주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고, 영어회화 표현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을 주고 영어 표현을 적게 하는 주관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 처치는 4월 첫 주에 표 1(단계 1-3)과 같이 두 집단으로(각 14명)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절차

단계	단순 반복 집단	창의적 반복 집단
사전 검사	능동적(Active Recall) 어휘평가	
1 단계	듣기(한국어 -> 영어)(주목 효과)	
2 단계	비대면 온라인 강의	
3 단계	패턴 드릴 (Pattern Practice)	창의적 반복 (Creative Generation)
사후 검사	능동적(Active Recall) 어휘평가	

1단계에서, 두 실험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과제물로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이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듣기에서 제공하는 과제를 연습하도록 하여, 목표 언어인 영어 표현에 주목(noticing)하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2단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의<sup>1</sup> 1차시로 두 집단 모두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본 연구자가 핵심어의 힌트를 주면 영어 표현으로 생각해내도록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2단계 학습은 1단계의 반복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3단계는 온라인 수업의 2차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실험 집단에 다른 수업을 제공하였다. 즉, 단순 반복 집단은 2단계와 유사한 문장의 패턴 드릴 위주로 반복 연습을 실시한 반면에, 창의적 반복 집단은 2단계에서 학습한 표현을 대화 속에서 학습하거나 수정된 문장 표현으로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반복하도록 유도하였다. 위의 단계가 마친 후에 바로 두 집단에게 사전 검사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시험을 문항의 순서를 바꾸어서 실시하였다.

사전 및 사후 검사는 Laufer와 Girsai(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평가 방법, 수동적 기억(passive recall)과 능동적 기억(active recall) 중에서 능동적 기억(active recall) 평가를 사용하였다. 후자를 택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어회화 표현이나 언어는 의미상 명백한 경우가 많고 표현상의 어려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능동적 기억 평가 19개의 항목(각 1점)으로 실시하였다.

예: 이 단추를 못 채우겠어요.  
I can't (                    ) this button.

### 3.2 연구 절차 및 실험 처치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5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주제 1과 2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두 실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통제된 공분산분석(ANCOVA) 통계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사전 검사 결과를 통제하고 사후 검사의 차이점을 조사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구 주제 3과 4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실험 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점이 유의미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짝 샘플 T-검증(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각 집단이 실험 처치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어휘 실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수준별 집단의 차이점을

<sup>1</sup> 대면수업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부득불 수정함.

조사하기 위해서 하급 및 중급 집단을 사전 검사 결과의 중위수(9)를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4. 결과

### 4.1. 실험 집단의 어휘 학습의 차이점

표 2의 기술통계를 보면, 단순 반복 집단의 사전 검사 평균( $M = 7.36$ )이 창의적 반복 집단의 평균( $M = 10.50$ )에 비해서 낮고 사후 검사의 평균에서도 창의적 반복 집단의 평균( $M=16.86$ )이 단순 반복 집단의 평균( $M = 14.50$ )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표 3과 같이 사전 검사 결과를 통제하여 두 집단의 차이점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 기술통계

집단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사전 검사	단순 반복	14	7.36	2.76
	창의적 반복	14	10.50	4.24
사후 검사	단순 반복	14	14.50	3.61
	창의적 반복	14	16.86	3.01

표 3의 공분산분석 결과는 사전 검사 결과를 통제한 상태의 사후 검사의 차이점을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591$ ). 즉, 반복과 창의적 반복 집단 간의 실험 처치 효과의 차이점은 1.2%(부분 에타 제곱)로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 3. 공분산분석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b>141.20</b>	<b>2</b>	<b>70.6</b>	<b>9.55</b>	<b>.001</b>	<b>.433</b>
절편	<b>417.98</b>	<b>1</b>	<b>418.1</b>	<b>56.5</b>	<b>.000</b>	<b>.693</b>
사전	<b>102.31</b>	<b>1</b>	<b>102.3</b>	<b>13.8</b>	<b>.001</b>	<b>.356</b>
집단	<b>2.19</b>	<b>1</b>	<b>2.19</b>	<b>.30</b>	<b>.591</b>	<b>.012</b>
오차	<b>184.90</b>	<b>25</b>	<b>7.40</b>			
전체	<b>7209.</b>	<b>28</b>				
수정된 합계	<b>326.12</b>	<b>27</b>				

Note. R 제곱 = .433(수정된 R 제곱 = .388)

추가적으로 표 4와 5에서는 수준별(하급 및 중급) 집단에 대해서 실험 처치의 효과를 보여준다. 하급과 중급 집단 모두 다 반복과 창의적 반복 실험의 효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하급 집단과 중급 집단의 유의확률은 각각 .412와 .298로 통계상 무의미하며, 실험 처치

의 효과로 두 수준별 집단의 차이점을 각각 7.6%와 8.3%만(부분 에타 제곱)을 설명하고 있다.

표 4. 공분산분석(하급 집단)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107.48	2	53.74	5.33	.030	.542
절편	58.35	1	58.35	5.79	.040	.391
사전	101.48	1	101.5	10.1	.011	.528
집단	7.46	1	7.46	.74	.412	.076
오차	90.77	9	10.09			
전체	2467.00	12				
수정된 합계	198.25	11				

Note: R 제곱 = .542(수정된 R 제곱 = .440)

표 5. 공분산분석(중급 집단)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10.49	2	5.24	1.74	.215	.211
절편	154.18	1	154.2	51.1	.000	.797
사전	1.67	1	1.67	.55	.470	.041
집단	3.54	1	3.54	1.17	.298	.083
오차	39.26	13	3.02			
전체	4742.00	16				
수정된 합계	49.75	15				

Note. R 제곱 = .211(수정된 R 제곱 = .089)

#### 4.2 실험집단의 어휘향상도

실험 효과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점은 전체 및 수준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집단의 사전과 사후 검사 사이에 유의미한 향상도를 조사할 필요는 제기된다. 표 6은 반복 집단과 창의적 반복 집단의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사이에 어휘 학습의 향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두 실험 집단 모두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단순 반복 집단의 향상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의 학습 수준이 평균적으로 중급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반복 학습( $t=-12.072$ )이 창의적 반복 학습( $t=-6.268$ )에 비해서 중·하위 집단에 더 효과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6. 사전·후 집단별 어휘 향상도

집단	검사	평균	표준편차	<i>t</i>	유의확률
단순 반복	사전	7.36	2.76	-12.07	.000**
	사후	14.50	3.61		
창의적 반복	사전	10.50	4.24	-6.27	.000**
	사후	16.86	3.01		

Note. \* $p < 0.5$ , \*\* $p < .01$

표 7과 8의 통계 결과는 각 실험 집단을 하급 및 중급 집단으로 나누어 수준별 집단의 어휘 향상도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표 7에서 단순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하급 및 중급 수준 집단 모두 동일하게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여준다( $p = .000$ ). 창의적 반복 학습의 경우에도 수준별 집단(하급 및 중급) 모두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여주지만, 중급수준의 학습자가( $p = 0.001$ \*\*) 하급 수준의 학습자보다( $p = 0.019$ \*) 더 높은 향상도를 보여준다. 종합하면, 단순 반복 학습은 동일하게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지만, 창의적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이 최소한 중급 수준에 올라야 그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단순 반복집단의 수준별 사전·후 어휘 향상도

집단	검사	평균	표준편차	<i>t</i>	유의확률
하급	사전	5.63	2.26	-8.08	.000**
	사후	13.25	4.37		
중급	사전	9.67	1.21	-11.55	.000**
	사후	16.17	1.17		

Note. \* $p < 0.5$ , \*\* $p < .01$

표 8. 창의적 반복 집단의 수준별 사전·후 어휘 향상도

집단	검사	평균	표준편차	<i>t</i>	유의확률
하급	사전	5.50	2.38	-4.59	.019*
	사후	14.75	4.43		
중급	사전	12.50	2.92	-5.15	.001**
	사후	17.70	1.95		

Note. \* $p < 0.5$ , \*\* $p < .01$

##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실험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지만, 반복의 종류에 관계 없이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여주었다. Peters 외(2009)는 성공적인 외국어 어휘 습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L2 학습자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어휘 정보, 즉 의미와 형태의 결합에 대한 인지적 참여 및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을

통해 강화되어야 합니다(pp. 114-115). 본 연구에서의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인 이유는, 모국어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듣기를 통해서 주목(noticing)을 유도하고,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자가 모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인지적 참여 연습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반복(단순 반복과 창의적 반복)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반복보다는 단순 반복 학습이 더 많은 향상도를 보여준 것을 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인 중·하위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단순 반복 학습이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대화나 문맥에서의 창의적 사용은 중·하위 학습자에게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각 반복 학습의 유형에 따른 수준별 집단의 사전·후 향상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단순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하위집단과 중위 집단 사이에 차이점이 없이 동일하게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이는 반면에, 창의적 반복 학습의 경우는 중위와 하위 집단이 둘 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반면, 중위 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그 향상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학습자의 영어 수준이 반복 학습의 유형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의적 반복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급이상의 능력을 요구된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중·하위 수준의 학생들에게서 유사하게 반복의 효과가 발생한 것은 모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발화 중심의 학습이 학습자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De la Fuente 2002). 또한 모국어의 사용은 Jiang(2002, 2004)이 주장한 것처럼 모국어의 의미적 공유를 통해서 처음에 학습자의 인지적 편안함이 일조를 한 것으로도 기대된다(Laufer and Girsai 2008). Jiang(2004)는 어휘 학습의 세 가지 전략, 언어 내(intralingual), 언어 간(interlingual), 언어 외(extralingual) 전략을 제안하는데, 모국어 번역을 사용하는 언어 간 전략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의미에 대한 명확성과 정확성으로 초기 단계의 어휘 학습에는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실질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에게 문맥의 제공과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서 모국어에서 목표 언어 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단순 반복 학습보다는 창의적 반복 학습이 어휘 습득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Nation 2001).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한계점과도 연결된다. 본 연구는 원래의 대면 학습 계획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여 실험 처치의 효과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희석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준별 차이점이 불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래 연구는 상위 및 하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학습 효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아울러 다양한 집단, 대학생이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Candry, S., J. Deconinck and J. Eyckmans. 2018. Written repetition vs. oral repetition: Which is more conducive to L2 vocabulary learning? *Journal of the European Second Language Association* 2(1), 72–82.
- De la Fuente, M. J. 2002. Negotiation and oral acquisition of L2 vocabulary: The roles of input and output in the receptive and productive acquisition of word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1), 81–112.
- Eckerth, J. and P. Tavakoli. 2012. The effects of word exposure frequency and elaboration of word processing on incidental L2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reading. *Language Teaching Research* 16(2), 227–252.
- Folse, K. S. 2006. The effect of type of written exercise on L2 vocabulary retention. *TESOL Quarterly* 40(2), 273–293.
- Hulstijn, J. H. and B. Laufer. 2001. Some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volvement load hypothesis in vocabulary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51, 539–558.
- Jiang, N. 2002. Form–meaning mapping in vocabulary acquisition in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4), 617–637.
- Jiang, N. 2004. Semantic transfer and its implications for vocabulary teaching in a second 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 416–432.
- Joe, A. 2010. The quality and frequency of encounters with vocabulary in a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programm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2(1), 117–138.
- Keating, G. D. 2008. Task effectiveness and word learning in a second language: The involvement loading hypothesis on trial. *Language Teaching Research* 12(3), 365–386.
- Kim, Y. 2011. The role of task–induced involvement and learner proficiency in L2 vocabulary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61(1), 100–140.
- Laufer, B. 2013. Lexical thresholds for reading comprehension: What they are and how they can be used for teaching purposes. *TESOL Quarterly* 47(4), 867–872.
- Laufer, B. and N. Girsai. 2008. Form–focused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vocabulary learning: A case for 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Applied Linguistics* 29(4), 694–716.
- Mondria, J–M. and B. Wiersma. 2004. Receptive, productive, and receptive + productive L2 vocabulary learning: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n P. Bogaards and B. Laufer, eds.,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80–100.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ers, E., J. H. Hulstijn, L. Sercu and M. Lutjeharms. 2009. Learning L2 German vocabulary through reading: The effect of three enhancement techniques compared. *Language Learning* 59(1), 113–151.
- Snellings, P., van Gelderen, A. and K. de Glopper. 2002. Lexical retrieval: An aspect of fluent second language production that can be enhanced. *Language Learning* 52(4), 723–754.
- Waring, R. and M. Takaki. 2003. At what rate do learners learn and retain new vocabulary from reading a graded reader?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5(2), 130–163.
- Webb, S. 2007a. The effects of repetition on vocabulary knowledge. *Applied Linguistics* 28(1), 46–65.
- Webb, S. 2007b. Learning word pairs and glossed sentences: The effects of a single context on vocabulary knowledge. *Language Teaching Research* 11(1), 63–81.
- Wolter, B. 2001. Comparing the L1 and L2 mental lexicon: A depth of individual word knowledge model.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1), 41–69.
- Wolter, B. 2006. Lexical network structures and L2 vocabulary acquisition: The role of L1 lexical/conceptual knowledge. *Applied Linguistics* 27(4), 741–747.

예시 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